송현민
음악평론가

클래식 음악과 나의 감성을 잇는 다리, 표제

봄이다, 봄.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때 계절감은 참 중요하다. 음식에도 절기가 있듯이 계절에 맞는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매력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마치 젊은 여인이 봄에 입을 노란 원피스를 구매하고 그 옷에 어울리는 노란색 표지의 시집을 고르는 손길처럼 봄에 맞는 음악을 고른다는 건 가슴 설레는 일이다.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지인들에게 KBS 1FM (93.1Mhz)의 청취를 추천한 다음, 보통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을 들어보라고 한다. 계절과 그것을 담은 음악이나 모두 피부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봄이 짙어지는 지금, 그래서 필자는 봄에 관한 클래식 음악 몇 곡을 추천해보려 한다.

봄이 오면 누구나 한 번쯤 듣고 싶어 하는 클래식 곡이 있다. 비발디(1678~1741)가 작곡한 '사계(四季)'다. 독주를 맡은 바이올리니스트와 바이올린·비올라·첼로·더블베이스로 구성된 현악 오케스트라와 피아노의 일종인 하프시코드가 함께 하는 '사계'는 음악 역사상 최초로 표제를 도입한 곡으로, 별다른 설명이 없이도 봄의 활기찬 기운을 느끼게 하는 곡이다.

둘러보면 '봄'이라는 단어가 표제에 붙은 곡들이 적지 않다. 하이든(1732~1809)의 '사계' 가운데에 '봄'이라는 제목의 악장이 있고, 요한 슈트라우스 2세(1825~1899)의 '봄의 소리 왈츠'는 환희에 넘치는 봄을 상기시키는 경쾌한 선율이 인상적이다. 멘델스존(1809~1847)의 '무언가' 중 '봄의 노래'도 그렇다. '무언가' (無言歌)는 가사는 없으나, 가곡과 같은 선율과 양식으로 되어 있어서 가사만 붙이면 그대로 노래가 될 수 있는 악곡을 뜻한다. 멘델스존은 이 곡을 원래 피아노곡으로 작곡했으나 선율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아무 악기로나 연주해도 되며 휴대전화 벨소리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작곡가 글라주노프(1865~1936)의 발레음악 '사계' 중에도 봄의 음악이 있고, 베토벤(1770~1827)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의 표제 또한 '봄'이다.

● 베토벤의 봄

이러한 표제는 대개 작곡가가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봄'은 베토벤 자신이 붙인 표제가 아니다. 보통 베토벤 하면 떠오르는 '월광', '비창', '열정', '폭풍'이라고 이름 붙은 피아노곡이나 교향곡 3번 '영웅', 5번 '운명', 6번 '전원'도 모두 마찬가지다. 문학적인 제목이 붙은 표제음악이 성행하기 이전인 그 당시에 부제가 붙은 곡들은 사실 출판되면서 베토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목이 붙어서 나온 것이 대부분이다. 마찬가지로 바이올린 소나타에도 '봄'이란 부제는 원래 없었으며 나중에 불리게 된 별칭이다. 그만큼 이 곡에서 봄기운이 물씬 풍겨난다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봄'이라고 제목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베토벤이 작곡한 9곡의 교향곡 중에 봄을 떠올리게 하는 곡은 뭐니 뭐니 해도 교향곡 6번 '전원'이다. 1808년에 작곡하고 같은 해에 오스트리아 빈 극장에서 연주된 곡이다.

베토벤의 일과는 동이 틀 때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돼 오후 2시경까지 일을 한 다음 보통 저녁때까지 산책을 하는 것으로 끝났다. 모두가 잠든 밤중까지 산책이 계속될 때도 있었다 하니 그의 음악에는 작곡가 자신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둘러본 자연이 들어 있다고 하겠다. 베토벤은 1악장의 악보에 '전원에 도착했을 때의 유쾌한 기분'이라 쓰고 전원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악기들이 묘사하게 했고, 2악장 '시냇가에서'는 제목 그대로 시냇가의 목가적인 분위기를 그리고 있다.

'농부들의 즐거운 모임'과 '폭풍', 그리고 '폭풍이 지난 후의 감사한 마음'을 노래한 3·4·5악장은 하나의 음악처럼 쭉 이어서 연주된다. 교향곡 6번 '전원'은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함께하기를 즐긴 베토벤이 자연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기분을 음악으로 표현한 곡이다. 시냇물의 재잘거림이나 새가 지저귀는 소리, 천둥소리 등 자연의 모습이 음에 의해 생생하게 묘사돼 있는 이 곡은 이해하기 쉽고 친근감이 간다.

신정근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장

"권권복응 拳拳服膺, 이불실지 而弗失之"
(중용)

원래 건망증은 나이 든 사람의 특징이었다. 나이 많은 사람이 깜빡하고 챙길 것을 놓쳤을 때 "나이가 들다보니 자꾸 기억력이 나빠져서…."라며 말꼬리를 살짝 내리곤 했다. 요즘 건망증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보이는 증상이 되었다. 현대 사회의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열쇠를 집에 두고 나와서 다시 들어가거나 핸드폰을 두고 나와서 떠났던 곳을 다시 찾거나 중요한 서류를 사무실에 두고 나와서 전화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일은 심심찮게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이다.

「중용」은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중도에 따르는 삶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중도'의 가치를 알고 있지만, 화가 치밀면 참지 못하고 욕설이 나오고 심지어 주먹다짐까지 벌이곤 한다. 혈연과 지연 그리고 학연 등 각종 인연에 매이지 말아야지 생각하지만 막상 믿을 사람을 찾다보면 어느새 편한 사람을 찾게 된다. 즉 우리가 올바르고 행복한 삶을 아예 모른다기보다 알고 있더라도 중요한 상황에 그 가치를 놓쳐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이나 지켜야 할 원칙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고민하게 된다. 좌우명(座右銘)과 명심(銘心)이란 말이 그런 고민의 흔적을 나타내고 있다. '좌우명'은 사람이 늘 앉는 자리 근처에 글귀를 써두고서 수시로 보면서 자신을 다짐하게 하는 것이고, '명심'은 아예 마음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뜻이다.

「중용」을 보면 이와 비슷한 "권권복응拳拳服膺, 이불실지而弗失之"의 구절이 있다. "가슴에 고이 간직해서 잃지 않도록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소중한 물건을 지닐 때 가슴에 아이를 안은 부모처럼 두 손을 맞잡아 가슴팍에 대고 그것을 떨어뜨리거나 놓치지 않으려고 온갖 신경을 다 쓴다.

"권권복응"은 바로 이처럼 손을 가지런히 모른 채 가슴에 댄 동작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자주 깜빡깜빡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 스트라빈스키의 봄

'봄'이라는 표제가 붙었다고 해서 마냥 사랑스러운 선율로만 된 건 아니다. 러시아 작곡가 스트라빈스키(1882~1971)의 '봄의 제전'에 담긴 봄의 빛깔은 좀 섬뜩하다. 아니나 다를까. 1913년 5월, 이 곡이 파리 샹젤리제 극장에서 처음으로 연주되었을 때 관중 가운데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며 처음 몇 소절을 듣고 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이없고 기가 막혀서 그대로 앉아서 듣기만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이 곡은 니진스키가 안무하여 러시아 발레단인 발레 뤼스가 선보였던 작품에 붙은 발레음악이다. 제물로 처녀를 바친다는 내용은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 문제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파격적이고 선동적이라는 데 있었다. 그래서 막상 피날레인 '산 제물의 춤'에 이르러서는 분개하여 매도하는 자와 흥분하여 격찬하는 자들의 아우성 소리로 오케스트라의 음악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관건은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에 있었다. 너무나 리듬이 격렬하여 발레가 따라가지 못하기도 했고, 그때까지의 클래식 음악을 대담하게 파괴해 가는 불협화음과 리듬 때문에 귀에 거슬리고 심기가 불편해져서 연주회장 문을 박차고 나가는 관객도 많았다. 지금은 교향악단 정기연주회에 자주 등장하여 청중의 귀를 시원하게(?) 해주지만 당시에는 이런 파격적인 성격 때문에 스트라빈스키를 일약 불명예스러운 스타(?)로 만들어주었다.

표제 음악은 이처럼 곡의 내용이나 분위기를 설명하거나 암시하기에 클래식 음악의 초심자에게는 표제를 이용한 감상을 적극 추천한다. 표제 하나로 음악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초심자가 아니어도 표제는 음악과 듣는 자 사이에 놓이는 다리 역할을 한다. KBS 1FM과 같은 전문 채널에서도 '봄'이 짙어지면 많은 이들이 '봄'을 탄다는 이유로, 전문가인 디제이 또한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기에 '봄'이라는 표제가 붙은 음악이 많이 흘러나온다.